

안전성을 책임지는 기업

축산분야에서 질병을 다루는 수의분야는 우리 축산농가와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이다. 질병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들은 질병걱정으로 수의사의 처방만을 목 빼고 기다릴 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이 축산분야에 접목되어 이러한 고민거리를 한층 덜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양계분야에서도 실시간으로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농가들이 규모화 추세에 있어 수의분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양, 영양, 환경, 생산, 인증, 유통 등 전부분에 걸쳐 전문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계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양계전문컨설팅 대표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네오바이오(주)를 방문해 소개하고자 한다.

양계전문컨설팅 기업

네오바이오(주)는 2002년 설립된 이후 안전한 먹거리 인증 및 모바일 원격진료시스템, 지식기반 서비스와 사료 및 항생제 대체 신물질 등을 개발·유통하는 동물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우리 양계농가들에게는 잘 알려진 양계 전문 컨설팅회사이며 2006년에는 SK텔레콤과 마케팅 및 기술협력을 통해 모바일 양계 종합 지식기반 서비스 “닥터-M”을 출시하였다.

네오바이오 유종철 대표는 소비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축산분야업체는 특성상



▲ 네오바이오 유종철 대표

농가위주로 홍보를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는 민감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항생제 관련 과잉보도가 또 한번 양축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나아가 계란과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양축가들은 항생제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자연친화 조건으로 축산물을 생산해야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양축가들 항생제 오남용의 원흉이 축산물인 아니라는 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농장들도 이에 발맞추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네오바이오는 이 부분에서 농가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모르면 소용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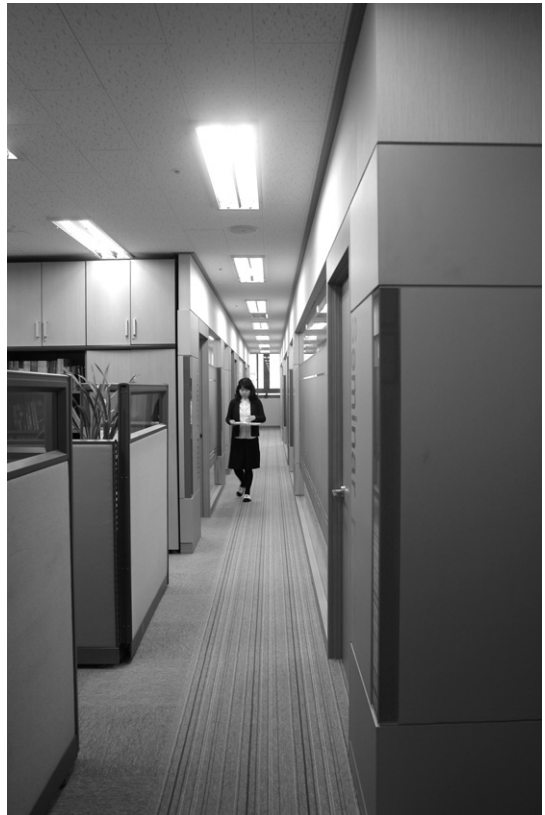
네오바이오는 프리보드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다. 유 대표는 우리 축산에 관련한 업계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농가만이 아닌 이제는 소비자까지 전달하려는 의중을 가지고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가 네오바이오(주)라는 회사를 떠올리면 계란·닭고기 안전성을 책임지는 회사라는 신뢰를 만들어가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회사 역시 깨끗하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 2005년도 투명경영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신기술 벤처기업 재인증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회사내부 또한 시세확장으로 이전하면서 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네오바이오의 노력은 과학기술부장관상 표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프리미엄 상품

네오바이오는 양계인들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열심히 하는 농장들을 보증하려는데 회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모두가 똑같아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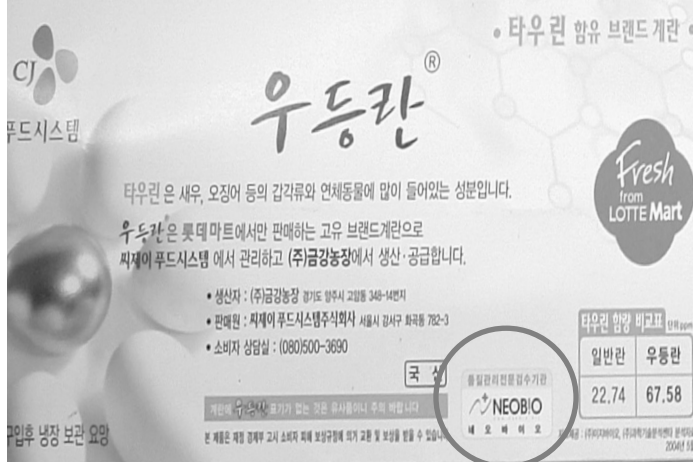
▲ 깨끗한 사무실 전경



▲ 네오바이오 다방면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써 인정받았다.



▲ 김찬기 사업본부장



▲ 예전 CJ 푸드시스템의 계란 품질검사기관을 담당했다.

력 있는 양계농가들을 육성시켜 형식에만 매여 있는 않고 질병·사양·경영·인증·유통 등 총괄적인 전문 컨설팅을 접목시켜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리가 일회성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성 있는 컨설팅으로 거듭나 농가에게 신뢰받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 원하는 핵심을 펼친다

네오바이오 크게 BI사업부, ML사업부, 바이오사업부, CS사업부로 구분시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다.

BI 사업부는 '건강한 닭이 건강한 부산물을' 라는 이념을 가지고 종계선택에서부터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까지 소비자의 식탁에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ML사업부는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계란을 창출하며 농가 고민인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바이오사업부에서는 항생제대체물질 개발과 육계, 산란계, 종계 분야별 제제 개발 등 신물질 개발을 통해 안전한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CS사업부는 수의기술, 질병, 환경, 사양관리, 인증사업 부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어 농가 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접목시키고 있다. 현재 큰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양계농협, 흥성사료, 대한사료 등에 관련된 농가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예전에 CJ 푸드시스템에서 출시된 계란 품질인증검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동사는 내년부터는 개별 농장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차우 사업을 확대하려는 농가들에게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닭을 사랑해서

네오바이오는 자사 홈페이지(www.neobio.net) 외에도 동물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양계인 포털 사이트인 애니피아(www.anipia.co.kr)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체의 이익중심이 아닌 양계인 모두가 공유할 있는 공간으로 양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로 가득차 있어 양계인이라면 알고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유 대표는 공익을 위해 애니피아를 협회와 상호협력해 보다 많은 양계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공익사업에도 뜻을 보였다. 나아가 모바일 질병진단 서비스인 '닭터-M'도 통신사와의 부분이 해결되면 협회를 통해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이는 양계분야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해 양계인들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유독 양계를 택했다. 닭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다. 네오바이오 역시 닭을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닭을 위해 모인 기업이라고 말한다. 네오바이오는 안전한 축산물을 목표로 농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앞으로도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을 네오바이오를 통해 우리 농가들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취재 | 김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 발간

본회는 채란인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채란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수익을 기대하시는 분, 현장방문을 통해 농가 지도를 원하는 영업부 직원(사료회사, 약품회사 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 : 산란계 전 기간에 걸친 사양관리(일령별, 특수관리 등)

♣분량 : 약 400페이지 분량

♣판매 : 15,000원(정가 20,000원)

단 10부 이상 구입시 10,000원

※2007년부터는 회원 15,000원, 일반 20,000원으로 판매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문의 : 대한양계협회 홍보팀 장성영(02-588-7651)

♣계좌번호 : 087-01-166106(농협, 예금주 대한양계협회)